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설교자

그 어린 주 예수(찬 108)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10:23b-33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나도 사람이라”

"참 반가운 성도여" (찬 122)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오후 1시 예배실에서 민영미 선교사 장례예식이 있습니다. 유족과 함께 합니다. Youtube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의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조의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 네팔목장에서 준비한 점심을 드시고 장례예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차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가족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성탄감사헌금의 50%는 선교와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6. 다음 주일(12/27) 예배 후에 예산안 결의와 장로 선출을 위한정기공동의회가 있습니다.
7. 2021년 사역부서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 큐티책 구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나 담당자(박순정)에게 신청해주세요. (1년-\$54,6개월-\$27)
9.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10.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 힘들어도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997년 개봉한 “La vita e bella”란 이탈리아 영화는 지금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말로 “인생은 아름다워”란 뜻인 이 영화의 제목은 가히 역설적입니다.

아빠 귀도역을 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귀도는 아들을 위해서 수용소에서 코미디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고달픔, 고통,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는 그렇게 연기하며 죽어갔습니다. 총살당하는 순간에도, 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 윈크를 하며 뼈에로처럼 걸어갔던 아빠는 네살짜리 아들에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하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보면, 세계 2차대전 시기에 아들과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된 아빠 ‘귀도’가 아들 ‘조수아’에게 이것이 게임이라고 말하고, 상황을 코믹하게 연출하며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합니다. 실제 상황은 숨막히지만 아빠의 노력으로 아들 조수아는 즐겁게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군에게 아빠는 총살을 당하고,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는 아들 조수아는 살아남아 미군을 통해 엄마 도라를 만납니다. 영화 끝에 나이든 조수아는 아빠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내레이션 합니다. **이 영화를 다 본 후 제목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진짜 제목은 “희생(사랑)은 아름다워”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 민영미 선교사의 장례예식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영미 선교사를 생각하면 애석할 뿐입니다. 이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불행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은 아름답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영미 선교사도, 또한 우리도 주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힘들지라도 주님의 희생 때문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432,626